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November, 2017

Newsletter

80 - ... KOREIANS POSVYAZETSIA
고려인 디아스포라 80주년 평화행진
2017. 10. 25-29



1. 선교역사 기행 2. 전국연합회 임원 임기를 마치며 3. 종교개혁 500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4. 독서프로그램 5. 몽골 선교지에서 온 편지 6. 한국여선교회 역사- 최용신
7. 생활상식-계피오일, 8.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차 대회 9. 함께하면 쉽습니다: \$ 1,000 모금운동



선교역사 기행



전국연합회 임원들께,
추수감사절이 다가 오네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17일에 서울에 도착해서 19일에 김혜선 목사님, 이한희 장로님, 한영은 전도사님, 박옥란 권사님, 박경자 집사님, 이예자 집사님, 정석인 권사님, 안용자 집사님과 함께 공주에 가서 한국선교유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주 선교역사와 유산' 학술회에 참석했습니다.

1900년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회에서 Alice H. Sharp 여선교사를 파송하였는데 그녀가 여성을 천시여기던 공주에서 20개 여학교를 개설하고 그중 하나인 영명학교에서 유관순을 교육시켜 이화학당에 유학을 보내는 등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저는 Alice H. Sharp 여선교사를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회가 왜 파송을 하였고, 그녀는 어떤 신앙의 결단으로 조선에 와서 일생을 바쳤는지에 대한 논문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대학 역사학 교수의 안내로 백제문화유적을 관람하며 역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뉴스레터에 기재할 예정입니다. 참석했던 우리 모두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24일에는 인천내리교회에서 열린 한국여선교회 120주년 축하행사에 김혜선 목사님과 저 그리고 9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1897년에 미국 여선교사들에 의해서 조이스회라는 최초의 한국여선교회가 조직되어 현재까지 역사를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합창단들에 의해 뮤지컬로 재현된 것이 너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한국여선교회 회원들의 120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내빈으로 소개되었고 역사적인 시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습니다.

25 일에는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저와 8 명(이한희 장로, 이경신 장로, 손영희 권사, 박경자 권사, 김옥남 권사, 박옥란 권사, 이에자 집사, 안용자 집사)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 추방 80 주년을 추모하며 평화행진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30 여명의 UMC 고려인, 미국 KUMC 목회자와 성도들, 그리고 한국감리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하여 주제 강연과 예배, 세미나,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극장에서 Jesus Super Star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날 공연 시작은 저와 한인여성교회 참가자 8 명이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에 맞추어 예전춤을 추었는데 하얀드레스를 입고 무대 조명받으며 평화를 기원하는 춤을 추었는데 참석자들이 우리들을 보고 과찬으로 천사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9 명은 예전춤 연습을 위해서 아현교회에 모여서 이틀간 김경옥 권사님의 인도아래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잘 배우셨고 열심히 춤을 추셨지요. 김경옥 권사님께서 우스리스크 고려인 무용단도 훈련시키셔서 함께 고려인 전통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에 계획했던 두만강은 러시아와 북한의 긴장관계로 출입이 금지되어 가지 못했으나 안중근 의사와 11 명의 동지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손가락을 잘라 혈서를 썼던 '단지동맹' 추모비를 방문했고, 연추라는 마을에 가서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보았습니다. 과거 고려인들이 살았던 신한촌과 현재 고려인들이 살고있는 우스리스크 방문, 독립운동가 이시형 선생님의 추모탑, 최재형 선생님의 생가, 등을 방문하면서 우리 고려인들이 얼마나 조국독립운동을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우기 1939 년 고려인 20 만명을 기차로 실어갔던 기차역까지 약 2km 를 행진하며 걸어갔는데 80 년전 강제이주로 아비귀한이었던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속소로 돌아와서 순교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았는데 한국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연해주에 오셔서 순교를 당하신 김영학 목사님의 삶과 믿음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연해주는 남강리회 선교지역으로서 88 개의 고려인 교회들이 있었는데 스탈린의 소련정권에 의해서 1932 년에 모든 교회들이 파괴되고 마지막으로 김영학 목사님이 끌려가셔서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순교하시므로 모든 선교가 중단되었으나 80 년이 지난후에 러시아 UMC 와 한국감리교회를 통해서 고려인 교회들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은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처음부터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관계된 일정이었습니다. 강행군의 일정에 열심히 협조해 주신 한인여성교회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기억하지않는 민족은 망한다고 하였지요. 지난 80 년이 우리민족의 고난의 역사였지만 이제 그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역사는 남과북이 하나되는 평화통일의 역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교자가 있던곳, 남강리회 선교지로서 한국의 여성교회 회장이었던 최나오미를 중심으로 전도부인 사역들이 펼쳐져 88 개의 교회가 세워졌던 그지역에 미국의 한인여성교회가 80 년만에 다시 그곳에서 유라시아 전도부인사역으로 기독교성훈련을 실시하게된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 역사의 현장에 불러주시고 보게하시고 배우게하시고 느끼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받은 도전과 교훈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평화의 역사를 계속 써 나가는 한인여성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명래 총무 드림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Mission History Travel

Dear NNKUMw officers,
Thanksgiving is coming.

I hope it will be a time of appreciation and joy.

I arrived in Seoul on Oct. 17th and went to Gongju with pastor Hae-sun Kim, Han-hee Lee, Young-eun Han, Ok-ran Park, Kyung-ja Park, Ye-ja Lee, Suk-in Jung, and Yong-ja An. We attended the 'Gongju Mission History and Heritage' conference organized by the Korea Mission Relics Committee. In 1900, Missionary Alice H. Sharp was sent to Korea by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She opened 20 girls' schools in Gongju, where women were considered inferior to men. One of them, Yeongmyung School, educated Gwan-soon Yoo and sent her

to study at Ehwa School and as such, the schools produced many ethnic leaders. I made a presentation on why missionary Alice H. Sharp was sent by 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and how she devoted her life to Chosun with a decision of faith. We also visited Baekje cultural heritage sites with a guide from Professor of History at Gongju University and learned history. Details will be included in the December newsletter. All of us who attended were greatly impressed and challenged.

On the 24th, Pastor Hae-sun Kim, nine members of the NNKUMw and I attended the celebration of the 120th anniversary of the WSCS at Incheon Nari Church. It was so impressive that the first WSCS called Joyce Chapter was organized by American female missionaries in 1897 and the history has been reproduced as a musical by WSCS National Union Choir. And the members of WSCS attended the celebration of 120 years from all over the country. We were introduced as invited guests and it was more meaningful to be able to be together in the historic time.

On the 25th, 8 people (Han-hee Lee and Kyung-shin Lee, Young-hee Lee, Kyung-ja Park, Ok-nam Kim, and Ok-ran Park, Ye-ja Lee and Yong-ja An) and I arrived at Vladivostok, Russia. It was to commemorate the 80th anniversary of the expulsion of Goryeo Diasporas and to participate in the peace march. About 130 Goryeo UMC members, pastors and members from the KUMC, and pastors and members from the Korean Methodist Church attended the lecture, worship, seminar, and "Jesus Super Star" performance at the Vladivostok Theater. On that day, eight NNKUMw members and I danced to the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hymn. We were dressed in a white dress and danced for peace with stage lighting. The attendees praised us as angels. Nine of us gathered at Ahn Hyun Church for the practice of dancing for two days and had an intense training under the guidance of Kyung-ok Kim. As a result, we all learned well and danced hard. Kyung-ok Kim has also trained the Ussuriysk Goryeo dancers and showed Korean traditional dance together.

Unfortunately, the planned visit to the Tumen River was banned because of tens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However, we visited the 'Dan Ji Dong Meng (translates to Cut off Finger Alliance)' monument, where patriot Ahn Jung-geun and eleven comrades cut off their fingers and wrote letters with the blood from their fing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then we went to a village called Ian'chikhe and saw the footstep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e were able to see how Goryeo people have lived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our country, by visiting Shinhannon, where the Goryeo lived in the past, and the Ussuriysk where the Goryeo people currently live, the memorial tower of Si-hyung Lee, the independence activist, and the birthplace of Jae-hyung Choi. Furthermore, when we walked about 2km to the train station which carried 200,000 Goryeo people by train in 1939, tears came out as I saw the scene of chaotic history due to forced migration 80 years ago.



We came back to our accommodation and watched a documentary film of martyrs. We saw the life and faith of Rev. Young-hak Kim, who was a martyr in Maritime Province as a Korean Methodist pastor. Surprisingly, the Maritime Province had 88 Korean churches as a Southern Methodist mission area. But in 1932 all churches were destroyed by Stalin's Soviet regime, and lastly Rev. Young-hak Kim was taken away and martyred in the Siberian concentration

camp. After that, all the missions were stopped, but 80 years later, Goryeo churches were rebuilt through Russian UMC and Korean Methodist Church. One grain of wheat fell on the ground, and we could see many fruits.



This trip was a schedule related to Korean Christian history from the beginning.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participants of NNKUMw for their support of the tight schedule. I also thank you for your prayers.

It is said that those who cannot remember the past are condemned to repeat it. The past 80 years have been the history of our nation's hardships, but now we must remember that history and never repeat those things again. The new history given to us now means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re-create a unified history of peaceful unification. In the place where there were martyrs, where it used to be the mission field of the Southern US Methodist church, 88 churches were built by Bible women ministry centered on Naomi Choi, who was the chairman of the 'Women's Mission

Conference of Chosun Methodist Association. I believe that it is not a coincidence but an enormous plan of God that the NNKUMw went there again in 80 years to train Christian women as a part of the ministry of Eurasian Bible Women program.

I thank God for calling us to the scene of our history and letting us see, learn, and feel. I pray that we will continue to write the history of love and peace while remembering the challenges and lessons we have received.

Regards,
Myung Rae Kim,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전국연합회 임원 임기를 마치며



전국연합회 임원 임기를 마치며

최미란 집사... 올해는 네쉬빌 훈련 한번 참석해봐 !!
많은 권사님 속에서 교회 중축이 되시는 권사님 한 분의 우렁찬 목소리 ~
권면이라 하기에는 너무 반 강압적이고도 "NO"할 수 없는 분위기에 못 이겨 그야말로 등 떠밀려 참석했던 2005.....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놓으신 주님의 계획하심이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권사님의 추천으로 남가주 연합회에도 참석하게 되어 10년후 연합회 회장까지 경험하고 나온 터 이쯤되고보니 ...강압적이든 등 떠밀려 갔던 다 맞는 때가 따로 있는 갈네요.
2005년을 다시 떠올리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실로 많은 경험과 귀한 만남이 이어졌음을 회상하며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체험이 있어 원고청탁에 흔쾌히

YES를 했지요. 물론 보는 각도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도 다르기에 개인의 생각임을 이해 바랍니다
우선 개인적인 느낌을 나누기전에 필요에 의해 조성된 전국연합회의 조직력과 끊임없는 헌신과 열정적인 노력,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나누었던 임원들의 사랑이,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보낸 지난 시간을 항상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전국연합회 네쉬빌 경험은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아갔던 저에게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세상에 그렇게 귀한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에 놀랐지요.
전국에서 모여든 한인 여성들!! 그중에서도 이민 여성 1세들의 색다르고. 독특하고, 강인하고, 생동감 넘치는 열정과 헌신이 혼합하여 이루어가는 조직은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며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전국연합회 여성들의 모든 모임과 행사와 프로그램 속에 흐르고 있는 동일한 추진력과 창조성을 창출해내는 능력이 좋은 예라 생각되네요.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지낸 세월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가져오기도 했고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많이 남겨주었음을 생각할

때 좀더 많은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면서 제일 먼저 추억에 남는 단어가 있다면
저에게는 "만남"입니다. 얼마나 많고 귀한 만남이
있었는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었고 그 만남을 통해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커다란 발전이 있었고 폭넓은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늘 개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위에 남들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함이
중요함을 느끼게 해주었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서로에게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만남들이었습니다.

전국연합회 임원을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준
단어는 "사랑"입니다.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단어인 듯하나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단어이지요.

전국연합회에서 보낸 많은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랑의 주고 받음은 분명코 귀한 은혜의 순간들로 남게
해 주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우리 서로가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조건을 뛰어넘는 임원들
간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랑이었기에 지금이 가능했지요.

애쓰지 않고도 떠올릴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해준 다른 한 단어는 "관계"였습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모나지 않은 성품은 귀한 주님이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관계가 중요함은 누구나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 관계가 어그러져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음을 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전국연합회에서 훈련을 받은 우리에게
확실히 심어주었던 배움 중 하나가 이런 관계를 귀히 여기고 주님의 뜻을 펼쳐가는 여선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많은 훈련 중 네쉬빌 훈련이야말로 가장 귀한 "배움의 장"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해마다 그 배움을 실천하는 "전도부인사역" 역시 개인적인 귀한 선교 경험이었습니다. 전국연합회에서
추진했던 전도 부인 사역을 통해 함께 했던 임원들과 귀한 순간들이 선교지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실천이었고 좋은 관계
속에 나누어진 은혜의 순간들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무궁한 발전과 귀한 만남들이 이어질 전국연합회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등을 통해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귀한 만남과 경험을 허락해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까지 이끌어주신 인생의 선배님들, 신앙의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계속 발전해가는
전국연합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글: 최미란 사모, 벨리연합감리교회, 전국연합회 친교부장, CA)



> English



As I am finishing my term of officer NNKUMw...

Miran Choi, why don't you attend the Nashville training this year?

It was the vigorous voice of a senior UMW member, who is the pivot of the church.

It seemed too coercive to call it an exhortation, so I was not able to say "NO" and was literally forced to attend in 2005. I confess that it was the exhortation that changed the direction of my life and that it was the Lord's plan. Ten years later, I became the president of the Cal-Pac KUMW Network by the recommendation of the same person. It seems that there is a right time to attend whether you've been pushed or forced.

Recalling 2005, I recall that I have had a lot of experiences and valuable encounters until now. I have a few experiences that I would like to share to those who have not had such an experience, so I delightfully said "YES" when I was asked to write an article. Of course, people see from different angles and think differently, so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this is only my opinion.

Before I share my personal feelings, I cannot forget the organizational power of NNKUMw, which was formed by necessity, and the love of the officers who give constant devotion, enthusiastic effort, and helping hands without name or fame. Frankly speaking, because I shared these experiences with them, I confess that the time I spent as an officer of the NNKUMw remains a beautiful recollection. The Nashville experience was an eye opener for me who was like the frog living in the well. Moreover, I was surprised that there were such precious women in this world.

Korean women from all over the country! Among them, the first generation of immigrant women who are diverse, unique, strong, vibrant, passionate, and devoted to the organization with a mixture of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found anywhere else in the country. I think a good example would be the ability to create the same momentum and creativity that flows through all the meetings, events and programs of the NNKUMw. When I think of the years I have been an officer have made a big turning point in my life and that I have gotten many unforgettable memories, I hope that more people will have the same experience.

As I am finishing my term and if there are words that remain in my memory, the first one would be the word "meeting". How many precious meetings there were! I was able to make beautiful memories and there was a great development in my personal religious life through the help of others and I was also able to indirectly experience a new wide world. In this age of living a self-centered life, it was important for me to understand others and to breathe together. These were valuable meetings from which I derived comfort and strength.

The word that has helped me to keep the executive position up to now is "love". It seems to be the easiest word to say, but in some cases, it is the most difficult word. In many times spent at the NNKUMw, giving and receiving the abundance of love have surely left us with moments of precious grace. I think it was the unconditional love of the officers that made it possible for us to be one with each other even though we were far away geographically.

Another word that left me with beautiful memories that I can recall easily is "relationship". I think it is the grace of the precious Lord to have a well-rounded personality that enables us to blend with everyone else well. Everyone knows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in our lives. However, living a hard life often seems to be the case because the relationship is broken. Thankfully, one of the teachings that was certainly planted in us through the training is to value this relationship and unfold the will of the Lord.

I am sure that the Nashvill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was one of the most valuable "learning places" out of many training sessions. Of course, the "Bible women Program" ministry that practices each year was also a personal precious mission experience. I am certain that the precious moments shared with the officers through the Bible women ministry that was promoted by the NNKUMw were due to the loving practices of the Lord in the mission field, and moments of grace shared in good relationships.

I thank the Lord that there have been good relationships to cherish and share beautiful lovely memories with. I confess that it was possible because there were some precious people who were with me. I hope that more of the Lord's grace and love will flow through all the events and programs of the NNKUMw, which will continue to grow and lead to valuable meetings. I thank the Lord for allowing me to have all these invaluable experiences. I am especially grateful to the seniors of life and faith, who has led me through this time and I pray for the continuing progress of the NNKUMw. Thank you.

(Written by Milan Choi, Valley KUMC, NNKUMw Cal-Pac)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부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이하며 뉴욕의 후러싱교회에서 매달 수요일마다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된 세미나중 평신도 여성의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살펴보고자한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년에 그의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만인제사장설 교리는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 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이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두가지 성경구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새번역)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표준새번역)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만인제사장설은 개신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들이 소명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감리교회와 여성들

1741년 요한 웨슬리 목사는 감리교회에 속한 설교자들과 교리와 장정에 대해 논의한 첫번째 연회를 소집했다. 감리교의 출발점이 된 이 모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사역이었다. 미국 땅에 감리교회를 조직화한 것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간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1766년 뉴욕시에 신대륙의 첫번째 감리교회가 필립 엠베리에 의해 조직되었고 여성들은 초기 공회와 속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필라델피아의 메리 도온은 미국 감리교회 최초의 여성 속회 지도자였으며, 미국 초기 감리교 설교자와 결혼한 캐더린 리빙스턴 개럿슨은 기도 모임을 조직하고 어린이들과 성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영적 스승의 역할을 하였다. 설교자와 평신도들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깊은 영성을 지니며, 미국 감리교의 성장에 헌신한 그녀의 활동은 웨슬리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여성들의 전형을 나타내주고 있다.

1798년-1826년 미국의 제 2차 신앙대각성운동은 여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회심자들을 배출하였다. 1780년대는 남성들에게에 여자를 위한 전문 학교들이 설립되었으나 1820년대와 1830년대에는 여성들에 의한 학교들이 설립되어졌다. 1860년대 미국의 남북전쟁동안 여성들은 새로운 차원에서 여성세력을 조직화하는 기회가 되었다. 남북 전쟁 동안 남자 65만명이 전쟁터에서 사망하였고, 남과 북의 온 사회가 전쟁에 동원되었다. 오하이오 출신의 여자 의사였던 메리 앤 비컬디키는 전쟁 동안 300개의 군 병원을 운영하며 군인들을 돌보았고, 수많은 여성들을 자원 간호사로 파송하였다. 또한 군인들에게 보낼 군수품을 지원하기 위한 2만개의 자선 단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대부분 여성에 의해서 조직되었다. 여성들은 남성이 없는 동안 경제를 책임지게 되었다. 농촌에서 농장과 플랜테이션을 경영하였고, 도시에선 사업을 경영하였고,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학교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전쟁으로 인해 빈곤과 노동조건이 나빠진 환경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마침내 1863년 뉴욕의 하류층 여성들은 가정을 위해 남성들이 군대에 징집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켰고, 여성 운동가들은 '전국여성총성연맹'을 조직하여 1865년까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4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 결과 수 천명의 여성들이 공적인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직 결성의 경험과 새로운 조직 기술을 습득하였다. 여성들은 미국의 공적인 역사에서 유래없는 열정과 조직력으로 남북 전쟁에 투신하게 된 것이다.

1873년에는 오하이오 할스보로를 중심으로 기독교 여성들이 금주 운동을 전개하여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금주 운동은 남북 전쟁 전부터 소수의 여성들이 주장해 온 것으로 술로 인한 남성들의 가정 폭력과 재정적인 무책임과 비도덕성으로부터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1880년대부터 동부와 남부 유럽의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여성 이민자들은 빈곤 속에서 가정을 책임지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노동 기사단이라는 조직체를 통해서 전문화된 직업 여성들이 생겨나고 노동조합 등을 조직하게 되었다.

초기 미국 여성들은 오직 가정에서 덕성을 지키며 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왔으나 1800년대부터 여성들은 종교적, 국가에 대한 사명의식으로 용기를 갖게되었고,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조직 기반의 경험으로 마침내 단체와 협회를 조직하게 된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들이 여성들이 해외 선교사로 나가는 요인이되었다.

미국 감리교인들은 타인에게 선을 행하는 자비의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요한 웨슬리의 뒤를 따랐다. 가장 중요한 자비의 사역은 영적, 육체적, 지적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순회 전도자들이 복음의 메세지를 가지고 도시, 마을, 농촌과 변방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는데 다른 나라 백성들도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외 선교사 파송 조직을 만들게 되었다. 1820년 미국 감리교회 총회는 최초로 공식 교단의 선교 기구를 설립하였다. 미국 내에선 흑인을 위한 최초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1833년에는 아프리카 선교, 1835년에는 남아메리카 선교, 1847년에는 아시아 선교 사역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국내와 해외에서 감리교 여성들은 이러한 선교사역에 선구자적 위치에 서 있었다. 1869년과 1893년에 현재 미국 연합 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모체가 되는 모든 교단의 여성들은 각각 국내와 해외 선교 기구를 조직하였다. 여성들의 선교 조직은 개체 교회 단위에서도 조직이 되었다. 이런 선교 구조는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 교육, 선교 기금 모금, 선교사 양성에 가장 능률적이며 효과적이었다.

또한 감리교는 시작부터 차세대 신앙 교육에 관심을 갖고 어린이들의 신앙과 도덕의 기초를 가르치는 주일학교를 실시하였는데 여성들이 교사로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해외 선교에 있어서도 교육 기관이 설립에 초점을 두었는데 1869년에 미감리교회 여성 해외 선교 공회가 인도에 이사벨라 쏘번 단과 대학을 설립하였고, 1886년에는 한국에 이화 학당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여성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역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써 나간것을 볼 수 있다.

(참고 서적 및 자료)

1. 존 웨슬리: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하여 (찰스 유리겐 Jr. 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2. 여성신학 이야기 (안상님 저, 대한기독교서회)
3. 한국 감리교회 여성교회역사 (이덕주 저, 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연합회)
4. 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사라 에번스 저, 이화여대 출판부)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성교회전국연합회)

> English



The Methodist Church in America and its Women Lay Leaders

In 1741, John Wesley called the first meeting of Methodist ministers to discuss matters on Methodist Doctrine and its book called Discipline. This was the beginning of Methodism. Its primary focus was in the ministry of making disciples of Christ. It was the lay people who immigrated to America from England and organized the spread of Methodist churches throughout the land.

In 1766, the first Methodist church in New York was established and organized by Phillip Ambery. Also, the participation of women took a major role in the beginn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along with its small group meetings.

At the beginning of the Methodist movement in America, Mary Doan became the first woman who led small group meetings in

Philadelphia. In addition, Catherine Livingston Garrettson, married a Methodist preacher, organized prayer meetings, taught the bible studies to children and adults, and became a spiritual leader for all levels of people. She also dedicated her life to support preachers and lay believers.

She set the example for many women believers wh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of Methodism.

During the 'second' Great Awakening Movement in 1798 through 1826, there was a big influence on women believers and produced many conversions. During the 1780's, many special professional schools were established by men, but in the 1820's and 1830s, many such schools were established by women.

During the Civil War, in the 1860's, women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level of woman-oriented organizations. During the Civil War, 650,000 men

were killed, along with the whole society of the North and South mobilized into the War. During the War, Mary Ann Bickerdyke, a woman doctor, operated 300 hospitals for the soldiers, and appointed many women volunteer nurses across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ere were also 20,000 charities organized mainly by women to support and to send military supplies for the soldiers. The economic responsibility fell on women while the men were absent. In the countryside, women managed the farms and plantations while in the cities women managed the running of businesses, schools and factories. Because of the War, women worked in conditions of poverty and harsher labor conditions. It was at last, women of low income families rose against the draft of their men into the armies. The Women's movement leaders organized the 'National Women Allegiance League' to raise their voices against slavery until 1865, and got the petition of 400,000 signers. In respons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women became involved in politics and gained the experience needed for organizing public affairs. Nowhere in American history was there an instance of women actively involving themselves politically surrounding an event such as the Civil War with great passion and organization.

In 1873 Christian women organized the prohibition of alcohol to protect families, which started in Hillsboro, Ohio. It began before the Civil War to protect family members from domestic violence, irresponsibility of the family finances, and immorality. From 1880, immigrants from Eastern and Southern Europe began to gush through and the women immigrants showed the strong will to be a part of the financial responsibilities of their families amid poverty. Also, there was the beginning of specialized women workers through an organization called 'Labor Technology,' and began to form a labor union.

In the beginning, women were bound by their homes only to raise and educate their children, but in the 1800's women were beginning to be involved in religious organizations and began to have a sense of responsibility in the political realm and in turn, led to organized groups and associations. This historical background led many Christian women to become missionaries abroad.

The Methodists in America participated in the act of good deed for mercy mission work to follow John Wesley. The most important part of mercy mission work was to take care of the neighbors' spiritual, physical, and mental needs.

Circuit preachers took these messages of mercy mission work to the cities, farmlands and countryside to proclaim the good news. At the same time, the Methodists thought the need of spreading the good news to the people outside of America, and formed an abroad missionary appointment organization. In America, the mission began for the blacks for the first time, and in 1833 for Africa, in 1835 for South America, and in 1847 for Asia.

Methodist women were in the position of leadership in mission work within the country and abroad. In 1869 and 1893, the Methodist women organized mission work for both. At the same time, these mission organizations were established in each local church throughout the nation. This brought the possibilities of reinforcing the mission work in mission education, gathering funds to support and raise missionaries.

From the beginning of the Methodist movement, women were always interested in Christian education for children. They started Sunday school for teaching the faithful life in Christ and morality of Christian life based on the Bible. This movement also influenced mission work abroad. In 1886, the Women International Mission Center of the Methodist church established Isabela Sorban college in India, and in 1886 established Iwha school for girls in Korea. These places continue to carry out the mission work in education for girls. Throughout the history of America, we see the women overcoming the challenge of the differences between religion and culture not only in the States but also abroad, to write a new history of mission work.

(Written by Myung Rae Kim,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독서프로그램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저자: 나태주

가을이 깊어 갑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이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누구라도 시인이 됩니다. 아니, 이런 가을날에는 시인이 되어 시를 쓰지는 못한다 해도, 시 한 수 꼭 읽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 책은 시집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생 살다가 은퇴한 나태주 시인이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자주 오르내리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시들을 모아서 펴낸 시집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어렵지 않아서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별것 아닌 것이 시인의 눈과 마음속에 들어가면 별것이 되어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집 한 권 사서 읽어보면서 낭만에 대하여, 고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 책에 실린 풀꽃이라는 시 소개합니다.

풀꽃 1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2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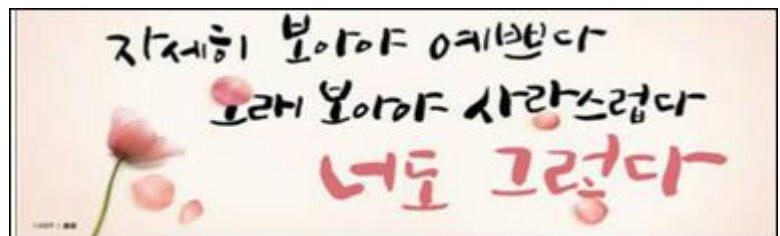
아, 이것은 비밀.

풀꽃 3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여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I See You Like a Flower

By Na, Tae-Joo

Autumn is deepening.

The colorful autumn leaves flaunt your chest.

Anyone is a poet, watching the fallen leaves.

No, even if I cannot write poetry on this autumn day as a poet, I must read poetry.

This book is a poetry book. It is a poetry collection by Na, Tae-Joo, a poet who retired after working as an elementary school teacher. This anthology is a collection of his favorite poems posted on the internet or blogs. Na, Tae-Joo poetry is very simple and not difficult, making it beloved by readers.

If something minuscule enters the eyes and minds of the poet, it becomes a star and makes our heart ring...

In this deepening autumn, how about reading a poetry book to think about romance, about solitude, about love, and about life?

I would like to introduce a series of poems entitled the *Wild Flower*.

Wild Flower 1

Pretty.

When you look at it for a long time it is lovely.

You are too.

Wild Flower 2

Once you know the name

Becomes a neighbor

Once you know the color

Becomes a friend

Once you know the shape

Becomes a lover.

Oh, this is a secret.

Wild Flower 3

Live and don't be disheartened.

Bloom a flower.

It is great.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몽골 선교지에서 온 편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여러분께,

몽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MUMW) 1 일 세미나 보고합니다.

제목: 기독 여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참여

언제: 2017년 10월 28일(토)

시간: 오전 9:30 - 오후 4:00

어디서: 칭글테 UMC

참석자: 60명

10:00-11:30 강의 1



각 교회 연락망 책임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서에 나타난 여성들” - UBTC 교수 롭선공브
13:30-15:00 강의 2

“그리스도의 향기” - 영적성장 아카데미 중보기도팀 대표 및 ‘영원한 사랑의 교회’ 지도자 에르덴치맥 등록, 찬양, 개회예배, 그룹 토의와 적용 그리고 발표회, 게임 및 놀이, 맛있는 점심 식사와 간식, 총회(회장: ‘축복된 삶’교회 평신도 지도자 절러가 임명됨. 임기는 2년), 각 교회 연락망을 위해 여성 지도자 선정)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를 드리면서,
김 선례 드림

A letter from Mongolian Mission Field To NNKUMw members

Report of 1 Day Seminar by MUMW (Mongolia United Methodist Women)
Theme: Influence of Christian Women in Society and Social Action
When: October 28, 2017(Saturday)
Time: 9:30AM - 4:00PM
Where: Chingeltei UMC
Participants: 60

Seminar 1: 10:00 - 11:30, “Women in the Bible Through the Eyes of Jesus”



by Professor Robsungomb of UBTU

Seminar 2: 1:30 - 4:00, “The Scent of Christ”

by Erdenchimack, the representative of intercessory prayer team of the Spiritual Growth Academy

Registration, praise, opening worship, group discussion and action plan, time of presentation, games, delicious food and snack, general meeting (Juller, the lay leader of the Blessed Life Church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for 2 years, election of UMW leaders for networking).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Thanking you always,

Sunlae Kim



한국여성교회 역사 - 최용신



농촌 계몽가 최용신

“이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며 또 누구를 찾는가? 사회는 새 교육을 받은 새 일꾼을 요구한다. 여기에 교육받은 여성들이 자진하여 자기들의 책임의 분을 지고 분투한다면 비로소 완전한 사회가 건설될 줄로 믿는다. 이제 그 활동의 첫 계단은 무엇보다도 농촌 여성의 지도라고 믿는다. 중등교육을 받은 우리가 화려한 도시 생활만 동경하고 안일의 생활만 꿈꾸어야 옳을 것인가? 농촌으로 돌아가 문맹 퇴치에 노력해야 옳을 것인가? 거듭 말하노니 우리는 손을 서로 잡고 농촌으로 달려가자.”

배운자로서 그 어느곳보다도 배움이 절실한 농촌을 외면할 수 없었던 최용신, 가난과 무지 속에 갇힌 농촌을 계몽하는 것이 완전한 사회로 가는 기본임을 알리며 짧은 생을 불살랐던 그녀의 결의가 돋보이는 글귀이다.

농촌 계몽가 최용신, 우리에게겐 소설 상록수의 여자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1909년 일찍이 서양문물과 기독교가 유입된 개항장 함경북도 덕원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조부는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통해 구국의 길을 찾으려 노력한 교육 운동가였으며 아버지도 교육에 종사하였다.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최용신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하였다. 1918년 고향의 사립학교에서 원산의 루씨여자 보통학교로 전학한 그녀는 농촌계몽 운동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1928년 루씨여자고등보통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녀는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황애덕 교수를 만나게 되면서 일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농촌사업과 관련된 공부를 한 황애덕 교수는 협성여자신학교에서 '농촌사업지도교육과'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 농촌의 실상을 강의하며 학생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갈 것을 강조한 황 교수의 가르침을 받은 최용신은 여름 방학에 농촌 현장 실습을 지원하였다. "제까짓 여자가 우리를 가르치러 왔느냐"며 그녀를 무시하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농촌을 향한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신학 수업을 중단한 최용신은 YWCA의 지원을 받아 1931년 10월,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샘골로 마침내 농촌운동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샘골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나의 몸과 마음을 남김없이 태워 이 마을을 밝히도록 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처음에는 교회 부속의 야학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듬해에는 정식으로 강습소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학생 수도 점점 늘어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운영되었고 밤에는 부녀자들을 모아 한글과 산수, 그리고 재봉과 수예를 가르쳤다.

강습소 신축에 대한 그녀의 설득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건축발기회를 조직하였고 마을의 유지가 기증한 뒷동산 솔밭이 터가 되어 1933년 1월 천곡학원이 완공되었다. 샘골은 나날이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변화해 갔다. 생활 개선, 농가 부업 장려를 위한 부녀회가 조직되었고 공동생산을 늘려가며 공동체적인 경제 토대를 구축하기에 이른다.

샘골에서의 농촌 계몽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될수록 최용신은 새로운 지식과 구상이 더욱 절실해졌다. 샘골을 농촌 운동의 한 도화선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유학을 결심한 그녀는 1934년 3월 일본 고베여자신학교 사회사업과에 입학하였다. 일본 유학 중인 약혼자 김학준을 만나 약혼한 지 10년이 되는 1935년 4월부터 민족을 위하여 같이 계몽 운동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약혼자 김학준과 최용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 활동을 하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다. 그녀의 농촌 활동에 대한 열정으로 결혼이 늦어졌지만 둘은 신뢰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시작된 유학 생활이었지만 갑작스레 각기병에 걸려 그녀의 유학 생활은 6개월 만에 중단되었다. "누워만 있어도 곁에 있어 달라"는 샘골 주민들의 간청으로 최용신은 샘골로 돌아왔다. 그러나 몸을 어느 정도 추스려 그녀가 다시 일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YWCA로부터 지원이 끊기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샘골 부인 회원들과 함께 좌측 최용신 선생

"도시의 여러분이여! 당신들의 생활은 얼마나 행복스럽고 얼마나 안락 하십니까? 우리 농촌의 아이들은 자라기에 배가 고프고 배움에 목이 마릅니다. 곡식을 심으면 일 년의 계가 되고 사람을 심으면 100년의 계가 된다고 하였거든 이 강산을 개척하고 이 겨레를 발전시킬 농촌의 어린이들을 길러주소서" 도움을 요청하며 그녀가 한 잡지에 기고한 글이다.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다. 악조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불꽃을 태우던 그녀는 결국 누적된 과로로 쓰러져 1935년 1월 23일, 27세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다. 그녀의 유언대로 천곡학원이 바라다보이는 언덕에 영원히 잠들었다. 암울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농촌 계몽을 위해 청춘을 바친 최용신, 모두가 외면한 가난하고 무지한 농촌을 향한 그녀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성교회 전국연합회 2017년 공과책)

> English



Yong-shin Choi, a Rural Enlightenment Trailblazer

"What does this society ask for? Whom does it look for? It demands new workers. The wholesome society can be built when educated women are willing to do their share of work. Now, I believe the first step to achieve that goal comes from the leadership of rural women. Is it right for us, who received the education, to dream of splendid city life and stay in our comfort zone? Or is it right to go back to rural areas and try to fight illiteracy? I want to tell you again we should hold our hands together and run to the rural communities."

The above statement depicts Yong-shin Choi's determination very well. She was an educated woman who could not turn away from the farming

villages. She believed enlightening rural areas from poverty and ignorance was the basic step toward a wholesome society. Yong-Shin Choi, a torchbearer for farmers, was born in 1909 at Dukwon, North Hamkyung Province, where

the western culture and Christianity were introduced early on. To many of us, she is also known as the heroine of the Korean classic, *Evergreens*, written by Hoon Shim. Her grandfather was an educator who built schools and was involved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r father was also an educator. Born into the educator's family, she attended Sunday school and grew up as Christian from early childhood. In 1918, she transferred from a private school in her hometown to Lucy Women's High school in Wonsan, and promised to devote her life to the rural enlightenment movement.

She graduated from Lucy Women's High School with the highest grade in 1928, and reached the turning point in her life when she met professor Hwang Ae-deok at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Professor Hwang, who endured imprisonment due to the incident of the Patriotic Women's Society, was teaching 'education of rural projects' at the Seminary after receiving his master's degree in the same subject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He lectured on the reality of rural life in Korea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returning to rural areas to his students. Yong-shin took his advice and volunteered to work in a rural area during summer vacation. Even though people showed the attitude that 'a girl like her could not educate them' or ignored her genuine intention, her faith in rural areas didn't waver.

She discontinued her education at the Seminary and, finally, took the first step in the rural enlightenment movement at the Saemgol of Banwolmeon, Hwaseonggoon, Gyeonggi Province in October, 1931 with the support of YWCA. As soon as she arrived at the Saemgol, she prayed, "let me sacrifice my body and my heart, and let me be the light for this village." At first, she started to teach children at the night school affiliated with the church, but with her dedication and hard work she was able to get formal accreditation in the following year. As the number of students increased gradually, the classes were given in the morning and afternoon, and evening classes to teach Hangul, arithmetic, and sewing and handicrafts for women started soon. She persuaded the village people to build a new school building. They voluntarily organized a construction committee. A villager donated a pine tree field where Chungok Academy was completed in January, 1933. Saemgol was transforming day by day in a lively atmosphere. The women's association was organized for improvement of life, promotion of farm households, and the joint production was increased to build a cooperative economic base.

As the rural enlightenment movement at Saemgol became successful, Yong-shin Choi became more passionate for new knowledge and ideas. In March 1934, she decided to study abroad with a hope that she would become a fuse of the rural movement, and she enrolled at the Social Work Department of Kobe Women's Seminary in Japan. There, she met her fiancé, Hak-joon Kim, who was studying in Japan also. The two decided to work for enlightenment movement for Korean people together in April, 1935 which marked the 10th anniversary of their engagement. They made their commitment for marriage while doing social projects at the church ten years ago. Her passion for rural enlightenment slowed their marriage, but they were bound by trust and love.

Although Yong-Shin Choi started studying abroad with a big expectation, her life in Japan was abruptly interrupted in six months due to Beriberi. However, the village people pled for her return, saying, "you are welcome here, even when you are bedridden." So, she returned to rural province. However, the support from YWCA was cut off when she wanted to start working again after recovery.

"Everyone in the city! How content and comfortable are you in your city life? Our children in rural areas are hungry. They are thirsty for learning. There is a saying that if you plant a grain, it will take a year to grow and if you plant a person, it will take a century to see the result. May I ask you to invest in rural children for the future of our nation and our people." This was a part of an article she wrote in a magazine to seek help. Unfortunately, the response was apathy. Despite the adversity, she worked tirelessly until she unfortunately succumbed herself to overexertion and passed away on January 23, 1935 at a young age of 27. Just like her last wish, she fell asleep forever on the hill that overlooked the school. She devoted her youth to enlighten rural peopl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exemplified love of Christ for the poor and benighted people of rural villages.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계피 오일의 치료효능과 만드는 법

계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향신료 중 하나이며, 약용, 요리용, 미용 용도로 아주 가치 있게 여겨진다. 이 향신료는 실론계피나무{cinnamomum verum tree}에서 추출된 향신료이며, 음료 및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지만 많은 자가요법의 주재료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계피는 방향 작용이 아주 많이 두드러진다. 이 때문에 향수, 방향제, 집안 청소제를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 이것은 항박테리아 성분 및 항산화제가 풍부해 외용 및 내복용 활용도가 많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점은 계피가 아주 저렴하며, 식생활에 더하기 아주 좋다는

점이다. 사실 이것은 다른 많은 재료와도 쉽게 결합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차나 셰이크로 섭취하지만 모든 성분의 효능을 얻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약용 오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피부 질환 및 면역계 질병과 문제를 완화하는데 이상적이다. 오늘 이 글에서는 이 약용 오일을 어떻게 만드는지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효능에 대해서 알아볼 것 이다.

*약용 계피 오일 만드는 방법

재료들이 오래 유지되므로, 만들어서 약통에 보관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일부 허브 매장이나 건강식품 매장에서는 계피 오일을 이미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이 홈메이드 레시피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다.

재료 : 통계피 12 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1 컵 (200g), 밀폐 유리 용기 1 개

만드는 방법

- 통계피를 유리병에 넣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붓는다.
- 통계피가 오일로 잘 덮이게 하고, 뚜껑을 덮어 따뜻한 곳에 보관한다.
- 농축 오일이 되도록 2~3 주간 둔다.
- 이것을 매일 흔들어서 계피 추출물과 오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한다.
- 권장 시간이 지나면 거즈나 거름망을 이용해 계피 잔여물을 걸러낸다.
- 마지막으로 어두운색의 병에 담고 시원한 곳에서 보관한다.

약용 계피 오일 의 효능

계피 오일은 항박테리아 및 항진균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균을 효과적으로 없앤다

1. 감기 예방

이 계피오일을 바르거나 먹는 것은 독감 및 감기의 불편한 증상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이것의 성분은 기도를 뚫어주고, 코막힘을 완화하며, 이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제거를 촉진한다.

2. 당뇨 완화

계피가 통제되지 않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데 가장 좋은 향신료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밝혀져 있다.

평소 식생활에 계피 오일을 2~3 방울 넣으면, 당뇨를 완화하는 흥미로운 효능을 얻을수 있다.

3. 관절염 완화

관절염 및 뼈 관련 질환 환자들은 이 천연 오일을 바를 때 증상 완화가 될 수 있다. 계피 오일은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완화해, 이런 질환으로 인한 통증과 움직임의 불편함을 줄여준다.

4. 피부 감염 해소

계피 오일은 피부의 모공을 통해 쉽게 흡수된다. 이것은 항박테리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모든 종류의 피부 감염을 완화할 수 있다.

이것은 무좀, 마른버짐 및 기타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상적이다.

5. 피로 완화

계피 오일 마사지는 신체적, 정신적 피로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의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뇌로의 산소 공급을 도우며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한다.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The Healing Ability of Cinnamon Oil and How It Is Made

Cinnamon is one of the world's most well-known spices and is considered very valuable for its medicinal and culinary purposes. This spice is extracted from Ceylon Cinnamon Trees and is used in beverages and desserts, but it is also used as a main ingredient for many self-help therapies. Cinnamon is very prominent in these features. For this reason, it is also used to create fragrant household cleaning products.

One of the best things is that the cinnamon is very inexpensive. Although many people ingest cinnamon in teas or shakes, they can also use it in other ways to utilize its healing properties. One way is to make medicinal oils. This is ideal for mitigating skin disorders and immune system diseases and problems.

How to make medicinal cinnamon oil

These ingredients can be kept for a long time and can be stored in a medicine bottle. Some herb stores and health food stores already sell cinnamon oil, but this homemade recipe can assure the use high quality ingredients at a lower price.

Supplies

- 12 cinnamon sticks
- 1 cup of extra virgin olive oil
- Airtight dark-colored glass bottle

Directions

- Place the cinnamon sticks in a glass bottle and pour the olive oil over them.
- Keep the cinnamon sticks well covered with oil, cover, and store in a warm place.
- Allow the oil to concentrate for 2-3 weeks
- Shake daily to allow the cinnamon extracts and oil to blend well
- After the recommended time, use gauze or cheesecloth to filter the cinnamon residue.
- Finally, store it in a cool place with other dark-colored bottles.



Benefits of medicated cinnamon oil

1. Cold prevention:

Eating the oil or rubbing it on your skin is a simple way to prevent and alleviate the uncomfortable symptoms of influenza and cold. The ingredients of the cinnamon oil penetrate the airway to relieve nose blockage and promote the removal of viruses and bacteria.

2. Arthritis Mitigation:

Patients with arthritis and bone disease may be able to relieve symptoms by rubbing this oil on their skin. Cinnamon oil promotes blood circulation and reduces the discomfort of pain caused by this disease.

3. Relieve skin infection:

Cinnamon oil is easily absorbed through the pores of the skin to assist in combatting skin infections.

4. Fatigue mitigation:

Using cinnamon oil during a massage helps relieve the symptoms of physical and mental fatigue. The ingredients of the cinnamon oil promote blood circulation, help provide oxygen to the brain, and optimize energy.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KUMC)





2018년 4년차 대회 안내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 여성교회 대회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2018년 5월 17-20일 까지 열린다. 이번 모임은 여성교회 150주년 모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래 편지에 있는 파랑색 온라인 주소를 누르면 등록할 수 있다.

올 2017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안으로 등록하시면 \$295.(2번 점심 식사와 워킹 포함)이며, 그 이후는 \$330.(편지로 등록할 경우 포함) *호텔은 각 연회에서 지정한 곳을 찾아 개인이 예약해야 한다.

*우분트 서비스데이 5월 17일 오전 9- 오후 3시 (\$60. 등록비 추가)

**장학금 신청은 12월 1일까지 온라인에서 다운 받아 할 수 있다.

***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편지는 여성교회장인 Shannon Priddy 에게서 온 글을 번역한 것이다.

여성교회 회원들께,

여성들이 단합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2018년에 열릴 4년 차 대회는 연합 감리 교회 여성 회원, 새로운 친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21세기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50년의 역사 동안 조직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의 사역으로 우리 서로와 교회 지도자들 및 파트너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받기를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4년차 대회는 지역 사회 건설, 행동을 위한 훈련 및 미래를 위한 비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담대하고 용기 있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2018년 5월 18-20일 동안 열리는 연합 감리 교회 여성교회 4년차 대회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년차 대회는 믿음의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제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영감을 주는 연설자들, 실제체험 전시회, 집중 워킹 및 타운 홀 스타일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담대하고 열정적인 150년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4년차 대회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위의 한 사람을 4년차 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 하시겠습니까? 등록은 2017년 9월 1일에 시작되며 조기 등록 할인은 2017년 11월 3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umwassembly.org 에 가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SHARE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콜럼버스에서 열릴 "담대한 힘" 4년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2018 Assembly Guide

Dear Korean UMW

When women unite, BOLD and courageous actions happen.

Assembly 2018 will be a forum for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new friends and partners to gather, worship and learn about the needs of women, children and youth in the 21st century. We will be claiming our 150-year history as women who know how to organize and serve and are willing to be challenged to grow in our faith as we build deeper connections with one another, church leaders and partners in the work of justice for all God’s children. Assembly will offer an incredible personal faith journey through community building, training for action and visioning a movement for the future. Bold and courageous ventures await us!

Join us in Columbus, Ohio at the United Methodist Women Assembly 2018, May 18–20, 2018, as we continue to be a unique movement for transformation in our church and the world.

Assembly 2018 will be a time for fellowship and opportunity to empower faithful women to be stronger discipleship leaders in their communities. Through moving worship, inspiring speakers, immersion experience exhibits, riveting workshops and town hall-style meetings, members will leave Assembly with the knowledge,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change the world as part of a daring and compassionate 150-year-old movement. The Journey of Mary, mother of Jesus, will guide our spiritual reflections throughout the weekend.

I am **asking you to commit. Your call today is to commit to sending one person from your local unit to Assembly. Will you answer the call?**

Registration opens Sept. 1, 2017 with an early registration discount ending Nov. 30, 2017. Visit umwassembly.org to register. Go to the SHARE page for resources to help spread the wor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 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성교회 회원들, 한인여성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년, 시작된 한인여성교회는 지난 23년간 여성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성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성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소망합니다!

2016년,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성교회 회원과 2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성교회 회원 한 사람이 2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성교회 회원은, 1884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성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 . 매달 \$45 또는 1년에 \$500 을 2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 .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성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김순덕, 김영매, 서영애, 남가주 연합회, 북가주 연합회, 이한희

> English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Dorothy Kim, Young Me Kim, Young Ae Seo, Cal-Pacific KUMw Network,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Han Hee Lee,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성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발행인: 김리자 회장/김명래 총무/권오연 부총무/한글교정-안영숙/영문번역-Rachel Hong/영문교정-Paul Lee/Web Master-김시춘